

# 의식화되어가는 텍스트로서의 세 『라쇼몬』 고찰\*

조경숙\*\*

cks417@hanmail.net

## Contents

1. 들어가며
2. 『곤자쿠』의 『라쇼몬』, 도둑>강도
3. 이쿠타가와와 『라쇼몬』, 도둑<강간
4. 구로사와의 『라쇼몬』, 도둑·강간·에고이즘·거짓말
5. 맺음말

## Abstract

本稿は『今昔物語集』の説話と芥川龍之介の小説『羅生門』、そして黒沢明の映画『羅生門』を取り上げ、意識化されていくテキストとしてのその過程を考察した論である。これらの三つの『羅生門』には当代の文学ジャンルと時代性が窺える好例のテキストである。それは盗人と強姦をめぐってのこれらの三つの『羅生門』の評価がそれぞれの時代と文学テキストの中でよくあらわれているからである。『今昔物語集』の説話には現代での盗みと強姦との評価が異なっている。すなわち盗人のほうはつよく非難されているが、強姦についての評価はなされていない。芥川龍之介の『羅生門』(=『藪の中』)には盗みと強姦ともにつよく非難するのみならずそれを殺人事件化され、それをめぐっての人間のエゴイズムが語られる、多様な人間君像があらわれている。そして黒沢明の『羅生門』には盗人、強姦、エゴイズムは相対的であり多様な判断の可能性を開いている、ポストモダニズム的な人間の意識が提示される人間の‘嘘’についての多様な角度の分析が行われている。したがって本稿ではこの三つの『羅生門』を盗人、強姦、嘘、エゴイズムという四つのキーワードを取り上げ、順次的にどのように受容され変化されているかを意識化されていくテキストとして考察しようとした。

\* 이 논문은 영상물 『라쇼몬』을 수업 중 텍스트로 사용하면서 좀 더 철저하게 분석해 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최근 이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라쇼몬』을 분석한 적이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그 고찰을 토대로 『곤자쿠 모노가타리슈』의 설화와 이쿠타가와와 『라쇼몬』 그리고 구로사와의 영화 『라쇼몬』을 들어 이 세 작품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자 했다. 본고에서 고찰하는 이 세 작품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미 수없이 많이 있지만 이 세 작품을 하나의 선상에 놓고 바라본 연구는 거의 없는 것 같다. 단 영화에 초점을 맞춘 이시준(2005)의 『라쇼몬:고전 설화에서 영화로의 궤적』(문학과 영상(6-2), pp.229~250)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단순히 순차적인 비교 고찰 방식이 아니라 좀 더 텍스트 내용에 충실하게 접근하고자 시도했다.

\*\* 경북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

Key Words : 羅生門、今昔物語集、芥川龍之介、黒沢明、藪の中

## 1. 들어가며

본고에서 고찰의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세 『라쇼몬』은 『곤자쿠 모노가타리슈(今昔物語集)』(이하, 『곤자쿠』)의 설화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이하, 아쿠타가와)의 소설인 『라쇼몬(羅生門)』, 그리고 구로사와 아키라(黒沢明)이하, 구로사와)의 영화 『라쇼몬』이다. 잘 알려져 있는 대로 구로사와의 『라쇼몬』은 아쿠타가와)의 『덤불 속(藪の中)』에서 그 제재를 차용하고 있지만 영화 전체의 배경이 『라쇼몬』인 것과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아기’의 설정은 아쿠타가와)의 『떼도둑(偷盜)』과 상응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나중에 본문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곤자쿠』는 헤이안(平安)시대를 다루고 있는 아쿠타가와)의 역사소설인 『라쇼몬』 『떼도둑』 『덤불 속』으로, 그리고 다시 구로사와)의 『라쇼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아쿠타가와)의 세 역사소설을 아쿠타가와)의 『라쇼몬』이라고 한다. 아쿠타가와)의 『라쇼몬』 『덤불 속』의 원화가 『곤자쿠』에서 제재를 취했기 때문에 이 두 설화도 『곤자쿠』의 『라쇼몬』으로 칭하기로 한다.

1951년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구로사와)의 영화작품이 계기가 되어 이 『라쇼몬』과 원작자 아쿠타가와)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는데, 이 세 『라쇼몬』을 비교 검토해 보면 흥미로운 점이 몇 가지 발견된다. 첫 번째는 당시의 문학적 장르와의 관련이다. 『곤자쿠』는 12세기 전후의 설화를 모이둔 설화집이 아쿠타가와)의 『라쇼몬』은 근대의 역사소설로 그리고 다시 1950년의 구로사와)의 영화라는 장르 속에서 재탄생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 세 작품 모두 당시를 대표하는 문학 텍스트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당시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데, 여기서 당시의 사회상이라는 것은 도둑과 강간을 둘러싼 평가가-당연한 말이겠지만- 각 시대별로 다르다는 것이며, 거기에는 의식화되어가는 인간의 모습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을 거칠게

분류해 보자면 『곤자쿠』의 『라쇼몬』에서는 도둑>강간<sup>1)</sup> 즉 강간에 대한 평가가 거의 무의식에 가깝고, 아쿠타가와와의 『라쇼몬』은 도둑<강간, 즉 강간으로 인해 살인사건이 일어날 뿐 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인간의 에고이즘이 구체화되는, 다시 말하자면 의식화 되어 가는 인간 군상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다. 또 구로사와의 『라쇼몬』에는 도둑, 강간, 에고이즘은 상대적이며 다양한 판단의 가능성을 열어 둔 그야말로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인간의 의식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세 번째에 초점을 맞추어 세 『라쇼몬』을 도둑, 강도, 거짓말, 에고이즘이라는 네 키워드를 들어서 어떻게 수용되고 변화되어 가는지를 순차적인 흐름으로 고찰해 본다. 고찰 순서로는 우선 『라쇼몬』과 『덤불 속』의 원화가 되는 『곤자쿠』의 두 설화를 들어서 검토한 후에 이것이 어떻게 아쿠타가와와의 『라쇼몬』과 『덤불 속』으로 수용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로사와의 영화에서는 또 어떻게 재구성 되어 있는지를 비교하여 고찰한다.

## 2. 『곤자쿠』의 『라쇼몬』, 도둑>강도

세계적으로 읽혀지고 있는 일본의 고전 『겐지 모노가타리(源氏物語)』가 헤이안시대 귀족들의 사회와 문화를 엿 볼 수 있는 문학적 텍스트라고 한다면 1120년 전후의 동시대의 서민<sup>2)</sup>의 그것을 엿 볼 수 있는 텍스트로서 『곤자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곤자쿠』는 인도, 중국, 일본이라는 세 편의 구성으로 각각은 불교와 세속 설화로 나누어져 있는 특징이 있지만 1000여 편의 설화로 구성되어 아쿠타가와가 지적한 “아름다운 생생함”과 “야만이 빛나는”<sup>3)</sup>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아쿠타가와는 이 『곤자쿠』에서 많은 제재를 취해

1) 이 세 텍스트에는 도둑과 강간이라는 중심축이 있는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가를 표시하기 위해서 '>'를 사용한다. 즉 '도둑>강간'은 '도둑'에 축을 두고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2) 당연한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설화 속에는 설화생성 당시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정신세계와 일상생활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고, 따라서 설화는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역사의 기록”이라고 하는 문명재(2003)의 말(『일본설화문학 연구』, 보고서, pp.13~25)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

3) 『芥川龍之介14』(1996)、岩波書店、p.242

다수의 작품들을 재탄생시켰는데 그 중의 하나가 헤이안시대 역사소설로 분류되는 『라쇼몬』이다. 일본 근대 문학 속에서 역사소설을 논할 때 흔히 모리오가이(森鷗外)의 ‘역사 그대로(歴史そのまま)’와 ‘역사에서 벗어남(歴史離れ)’의 방법을 드는데, 모리오가이와는 다른 당시의 인간심리를 파헤치는 도구로서 사용한 아쿠타가와와 역사소설 류의 대표작이 『라쇼몬』이다.

그렇다면 『곤자쿠』에서 아쿠타가와와 『라쇼몬』 그리고 『덤불 속』이 어떻게 수용되어 있는지를 우선 『곤자쿠』의 제29권 제18화 ‘라쇼몬 위층에 올라가 죽은 사람을 본 도둑 이야기(羅城門登上層見死人盜人語第十八)’ 설화에서 살펴본다. 세쓰(摂津) 지방에서 도둑질을 하려고 상경한 사내가 아직 해가 지지 않아서 라쇼몬 아래 숨어서 주작대로에 사람의 왕래가 많아서 인적이 뜸해지기까지 문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야마시로(山城)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소리가 나서 몸을 숨기려고 2층으로 살짝 올라갔다. 거기에는 불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도둑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 들창으로 들여다보니 젊은 아낙네가 죽어서 누워 있고, 그 머리맡에 불을 켜고 꼬부랑 노파가 앉아서 그 시체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뽑고 있었다. 도둑은 그 모습을 보고 혹시 귀신이 아닐까 소름이 끼쳤지만 어찌면 죽은 사람의 혼령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저 한번 위협해보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살며시 문을 열고 칼을 뽑아 “이놈! 누구냐!”하고 소리치며 달려들자 노파는 기겁하고 두 손을 짹짹 빌며 애걸복걸한다. 그 노파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그쳐 묻자 노파는 자신의 마님이었던 분인데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없어서 라쇼몬에 버려두었고 머리가 한 길이 넘어 그걸 뽑아 가발을 만들려고 했다며 살려달라고 애걸한다. 그 말을 들은 도둑은 시체의 옷과 노파의 옷, 그리고 노파가 뽑은 머리카락을 빼앗아 아래로 재빨리 내려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4)는 것이 주된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다음은 『덤불 속』의 원화가 되는 『곤자쿠』의 제29권 제23화 ‘단바(丹波)지방을 가는 남자가 오에(大江)산에서 포박당하는 이야기(具妻行丹波國男於大江山被縛語)’의 설화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 교토에 사는 자의 아내가 단바(교토와 효고(兵庫)현의 일부) 출신이어서

4) 『今昔物語集4』(2002)、小学館、pp.34~6347

그 처를 데리고 단바로 갔다. 아내를 말에 태우고 자신은 화살을 10발정도 쫓은 화살통을 메고 활은 손에 들고 그 뒤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오에산 부근에서 칼을 찬 힘이 세어 보이는 젊은 남자와 함께 동행 하게 되었다. (중략) 이윽고 점심을 먹기 위해 덩불 속에 들어가려고 하자 젊은 남자는 “사람이 다니는 길 이어서 보기에다 그러니 좀 더 안으로 들어가지요”라고 해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여자를 말에서 안아서 내리려고 하는데 이 활을 가진 남자가 갑자기 활에 화살을 걸고 처음의 남자를 겨누고 힘껏 활시위를 당기며 “이놈! 움직이면 쏜다!”라고 한다. 처음의 남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자 어안이 빙빙해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러자 “저 안으로 더 들어가! 우물 쭈물 하지 말고!”라고 위협해 죽일까 두려워 처를 데리고 좀 더 안으로 들어갔다. 또 “칼과 단도를 던져!”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모두 던지고 서 있자 가까이 와서 빼앗고 때리고는 넘어뜨린 다음 말고삐 줄로 나무에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여자 옆으로 다가갔다. 보니 여자는 20살 안팎으로 신분은 천하게 보였지만 매력적이고 상당히 아름답다. 남자는 이를 보자 완전히 반해서 다른 것은 생각도 않고 다짜 고짜 여자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여자는 저항할 힘도 없이 시키는 대로 옷을 벗었다. 그리고 남자도 옷을 벗고 여자를 안고 두 사람은 누웠다. 여자가 어쩔 수 없어 남자가 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을 남자는 나무에 묶인 채로 보고 있으니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 후 남자는 일어나서 원래대로 옷을 입고 활통을 메고 칼을 차고 활을 가지고 말에 걸터앉고는 여자를 향해서 “안됐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 간다. 그리고 그대를 봐서 당신 남편은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 빨리 도망가야 하니까 말은 내가 타고 간다”고 말하곤 손살같이 도망갔으므로 어디로 갔는지 그 행방은 몰랐다. 그 후에 여자는 남편 옆에 다가와서 고삐를 풀어주자 남편은 망연자실한 얼굴이었다. 여자가 “당신은 정말 한심스러운 사람이군요. 앞으로 이래서야 어찌 당신을 믿을 수 있겠어요.”라고 했지만 남편은 한 마디도 하지 못하고 여자를 데리고 단바로 향했다. 5) (논자 역, 이하 동일)

이 두 설화를 보면 첫 번째는 도둑이 도둑질, 두 번째는 젊은 남자가 도둑질과 강간을 했어도 거기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다. 오히려 화자는,

젊은 남자는 참으로 기특하다. 참으로 여자의 옷을 빼앗지 않았구나. 처음의 남자는 정말 한심스럽도다. 산 속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에게 활과 화살을 건네

5) 『今昔物語集4』(2002)、小学館、pp.356~359

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젊은 남자가 어떤 자인지는 결국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라고 도둑질하지 않은 것에 감탄하고 있는 것은 당시와 동떨어진 현대의 시각에서는 가히 해학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강간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상이한 반응은 골계적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여성의 지위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한다. 『곤자쿠』에서의 여성지위는 전시대에 비해 또 동시대의 다른 작품에 비해서도 그 지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표현<sup>6)</sup>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곤자쿠』의 설화적 특성상 서민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런 여성과 남성의 지위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부부의 정조와 도적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는 화자의 이야기는 결국 독자들에게 위임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독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아쿠타가와가 그의 작품 속에서 재탄생시키고 있는 것 같다.

### 3. 아쿠타가와와 『라쇼몬』, 도둑〈강간〉

위에서 살펴본 『곤자쿠』의 두 설화는 아쿠타가와에서는 『라쇼몬』과 『덤불 속』에서 각각 재편되어 있다. 이 두 작품은 설화와는 달리 도둑, 강간에 대한 인간제 각각의 평가와 그에 따른 예고이즘이라는 문제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먼저 『라쇼몬』부터 살펴보면, 4,5일전에 주인에게 해고된 계닌(下人)이 비를 피하기 위해 라쇼몬으로 와서 비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도둑이 되어야 할지 아니면 굶어 죽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계닌은 날이 저물어도 비가 그치지 않아 하룻밤을 라쇼몬 누상에서 보내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 그런데 거기 누상에는 어떤 죽은 여자의 머리카락을 뽑고 있는 노파가 있고 그것을 발견한 계닌은 ‘도둑’과 ‘아사(餓死)’라는, 선악에 대한 이분법적 잣대에서 고민하던 그 문제의 해답을 노파에게서 발견한다. 즉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체의 머리카락이라도 뽑아 가발을 만들어야 된다는 노파의 그 ‘어쩔

6) 허영은저(2005) 『일본 문학으로 본 여성과 가족』, 보고서, pp.245~273

수 없다’는 삶의 논리를 수긍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계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문제의 해결책으로 결국 계닌은 노파의 말대로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적용하여 노파의 옷을 벗겨 매달리는 노파를 발로 차고 칠흠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는 것인데, 이것이 아쿠타가와와 『라쇼몬』의 전체적인 줄거리이다.

아쿠타가와와 『라쇼몬』과 『곤자쿠』의 그것과는 크게 세 가지의 상이점을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계닌이다. 『곤자쿠』에서는 이미 도둑질을 하러 상경한 도둑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아쿠타가와와 『라쇼몬』에는 도둑이 되어야 할지 어떨지 고민하고 있는 ‘계닌’으로 재탄생 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파가 머리 카락을 뽑는 객체인 시체이다. 『곤자쿠』에서는 노파의 ‘마님’으로 나오지만 아쿠타가와와는 뱀을 말린 생선으로 속여 파는 ‘장사꾼 여자’로 바뀌어져 있다. 이 여자 또한 뱀을 말린 생선을 팔지 않으면 굶어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노파의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입증해 주는 역할로서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서민의 의식화 즉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삶의 논리는 인간의 ‘선과 악’의 사회의 윤리적 잣대로 구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으며, 이 노파 역시 『라쇼몬』에서는 삶에 대한 의식하는 주체로 나타나 있다. 즉 자신의 입장과 장사꾼 여자의 입장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결론으로 도출시키고 있다. 이 결론의 도출 또한 계닌에게로 이어져 ‘도둑’과 ‘아사’라는 단순한 ‘선과 악’의 이분법적 논리에서, 인간의 예고이즘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이어지고 있는데, 동시에 그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그리고 인간의 예고이즘이 발생하는 원인, 특히 사회적인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저변에 깔려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제기는 계닌 그 스스로 ‘악’을 선택해 ‘도둑’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지만 그 후에 계닌의 행방은, 그 ‘행방’에 대한 해석은 독자에게 위임되어 역시 미궁 속으로 ‘하인의 행방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의 예고이즘은 아쿠타가와와 『덤불 속』으로 가면 그 이야기가 좀 더 복잡하게 전개된다. 남편 다케히로의 죽음을 둘러싼 각각의 증인들, 즉 나무꾼, 마사고의 어머니, 스님, 도둑 다조마루, 아내 마사고 그리고 무녀를 통한 다

케히로의 이야기 등, 이들의 진술을 통해 다케히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진상을 파헤쳐 가는 일종의 추리풍의 역사소설<sup>7)</sup>로 구성되어 있다. 『곤자쿠』와의 차이는 우선 『곤자쿠』는 어떤 여자가 강간당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남편이 살해당하지도 않았으며 또 여자의 강간에 대해 그 남편이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 아내가 앞으로 그런 남편을 의지할 수 없다고 하는 비난 투의 말을 남기고 있으며 또 화자 자체도 강간한 젊은 남자가 도둑질 해 가지 않은 것을 감탄해 하고 있다. 이것을 아쿠타가와는 강간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살해 사건으로 재편하고 이 세 명의 주된 인물에게 각각 이름을 부여하고 있다. 남편은 다케히로로 아내는 마사코로 동행한 사내는 다조마루라는 도둑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명명 그 자체는 근대화의 반영물<sup>8)</sup>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곤자쿠』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화자는 『덤불 속』에서는 시체를 발견한 나무꾼, 스님, 포졸, 마사코의 어머니로 분류되어 사건의 진상을 찾아가는 객관적인 증거로써 채택되고 있다. 또한 『곤자쿠』가 강간에 대한 판단이 없는 것에 비해 『덤불 속』에서는 그것으로 인해 남편의 살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다른데, 그렇다면 여기서 다조마루, 다케히로, 마사코의 진술을 통해 이 살해에 대한 진상을 살펴본다. 다조마루는 “그 남자를 죽인 것은 접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들 부부와 만나서 그 남자를 죽이게 되었는지 사건경위를 진술한다.

(전략) 뭐, 남자를 죽이는 것은 나리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어차피 여자를 빼앗으려면 반드시 남자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저는 죽일 때에 허리의 칼을 사용하지만 나리님들은 칼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권력으로 죽이고 돈으로 죽이는, 어쩌나 하면 남을 위하는 척 하면서 실속을 차리는, 말만으로도 죽입죠. 피는 흘리지 않지만 그럴듯하게 멋지게 살고 있다. - 그런데 그래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어느 쪽이 큰 죄인지를 따져 보면, 나리님들이 나쁜지

7) 아쿠타가와와 『덤불 속』은 아쿠타가와와 개인적인 연애사과도 관련이 있는데, 아쿠타가와와 죽음의 이유 중 하나인 히메 시게코(秀しげ子)라는 여성과의 내연관계이다. 오아나 류이치(小穴隆一)의 말에 의하면 이 여성이 아쿠타가와와 내연의 관계에 있었으면서 난부 슈타로(南部修太郎)와도 깊은 사이였다고 한 것에 기인하지만, 사후 아쿠타가와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판명이 났기는 하지만 『덤불 속』에서는 그러한 삼각관계의 그림자가 강하게 엿보인다.

8) 실제로 일반인과 여성에게 까지 이름이 붙여진 것은 메이지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제가 나쁜지 누가 나쁜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꼬는 미소) (중략) 남자를 죽인다고 해도 비겁한 방법은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자를 묶었던 밧줄을 풀어주고 칼로 승부를 내자고 했습니다. (삼나무 밑 등지 주변에 떨어져 있던 것은 밧줄이었습니다.) 남자는 안색이 바뀌더니 두꺼운 칼을 뽑아서는 아무 말도 없이 의연히 나에게 덤벼들었습니다. - 그 칼싸움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말씀 드릴 것도 없습죠. 내 칼은 2,30합 짜 상대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2,30합 짜에 말입쥌- 부디 그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그것만은 감탄하고 있습니다. 나와 20합 넘게 싸운 것은 천하에 이 남자 한 사람 뿐이니까! (쾌활한 미소)

도둑 다조마루의 진술에서 두 가지 점을 주목하고 싶다. 첫 번째는 도둑으로서의 다조마루이다. 자신이 ‘비겁’하지 않다고 하는 다조마루는 이미 그 말에 상당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그 자신이 숨겨둔 보물로 다케히로를 유인해 낸 그의 거짓말이 이미 ‘비겁함’을 말해 주고 있고, 또 ‘2,30합’이나 싸웠다라고 하는데, 후에 다케히로가 스스로 자살했다는 진술과 어긋난, 허세로 가득 찬 도둑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사회비판자로서의 다조마루가 엿보인다. 도둑으로서의 다조마루는 색욕에 눈멀었지만 아름다운 마사고를 차지하기 위해 나무에 묶인 다조마루를 그대로 죽이지 않고 결투를 하고자 하는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비열한 도둑의 모습은 아니다. 권력자들에게 ‘권력’ ‘돈’ ‘말’로 사람들을 죽이는 ‘비겁한 방법’과 자신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비교하며 권력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그 모습에는 사회비판자로서의 모습과 그 자신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런 ‘나리남’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처럼도 보인다.

그리고 다음은 아내 마사고의 진술이다. 마사고의 시선에는 남편 앞에서 강간을 당한 아내로서의 정조에 대한 깊은 괴로움이 남성적 시선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 남색 옷을 입은 남자는 저를 폭행하자 묶여있던 남편을 바라보면서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남편은 얼마나 한이 되었을까?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묶여있는 밧줄은 한층 더 몸을 조일 뿐입니다. 저는 남편 곁으로 쓰러지듯 달려갔습

니다. 아니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순식간에 나를 거기에 넘어뜨렸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나는 남편의 눈 속에서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번뜩임이 숨 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저는 그 눈을 생각하면 지금도 온 몸이 떨립니다. 말도 한 마디 하지 않았던 남편은 그 순간 그 눈에 그의 마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번뜩인 것은 분노도 아니며 슬픔도 아니다 - 단지 나를 경멸한 차가운 눈빛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남자에게 차인 것보다 그 눈빛에 맞은 것처럼 저도 모르게 무언가 외친채로 마침내 정신을 잃어 버렸습니다. (중략) “그러면 당신을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곧 바로 뒤 따라 가겠습니다.” 남편이 이 말을 듣고서야 겨우 입술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물론 입에는 대나무 낙엽이 가득 들어있었으니까 무슨 말인지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보자 곧장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경멸한 채로 ‘죽여!’라고 한마디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거의 꿈과 현실 사이에서 남편의 가슴 쪽에 폭하고 칼을 찔렀습니다.

도둑에게 강간당한 것을 본 남편의 생각은 배제된 채 마사고의 진술로 이어지고 있는데 마사고가 느끼는 남편의 ‘경멸’ ‘차가운’ ‘남편의 눈 속’은 그 시대의 사회의 눈으로 여성에게 정조를 강요하는 것으로 대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사고는 정조를 잃은 여인의 괴로움을 남편의 ‘눈’속에서 『곤자쿠』의 부부와는 달리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궁지로 이끌어 간다. 이러한 마사고의 진술에 이어 마지막으로 다케히론데 이미 죽은 인물이어서 무녀의 입을 통해서 진술된다.

(전략) 도둑에게 그런 말을 듣자 아내는 멍하니 얼굴을 들었다. 나는 그 때처럼 아름다운 아내를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아내는 묶여있는 나를 앞에 두고 뭐라고 도둑에게 대답을 했는가? 내가 연옥을 헤매면서 아내의 그 대답을 생각할 때 마다 원망에 불타지 않은 적이 없었다. 아내는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다. - “그러면 어디든지 데리고 가 주세요.” (긴 침묵) 아내의 죄는 그것 뿐 만이 아니다. 그것뿐이라면 이 어둠 속에서 나는 이처럼 괴롭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내는 도둑에게 손을 잡힌 채로 숲 밖으로 가려고 하더니 갑자기 안색을 바꾸고 삼나무 밑 등지에 묶여 있던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아내는 미친 듯이 몇 번이고 이렇게 외쳤다.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 이 말은 태풍처럼 지금도 먼 어둠 속에

서 거꾸로 나에게 붙어온다. 이렇게 미워해야 할 말이 인간의 입을 통해 나온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이 정도로 저주 받을 말이 인간의 귀에 들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한번이라도 이 정도로 -(갑자기 솟구치는 조소)- 아내는 그렇게 외치면서 도둑의 팔에 매달렸다. 도둑은 가만히 아내를 쳐다보며 죽인다고도 죽이지 않는다고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도둑은 아내를 한 번 걸어챘는데 아내는 그대로 대나무 낙엽 위에 쓰러졌다(다시 한 번 솟구치는 조소) 도둑은 조용히 양팔을 꼬고 나를 보았다. “저 여자를 어떻게 할까? 죽일까 아니면 살려줄까? 대답은 그저 끄덕이기만 하면 돼. 죽일까?” -나는 이 말만으로도 도둑의 죄는 용서해 주고 싶다. (다시 긴 침묵)(중략) 나는 겨우 삼나무 밑 등지에서 피곤에 지친 몸을 일으켰다. 내 앞에는 아내가 떨어뜨린 칼이 하나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손에 들어 내 가슴을 한 번 찔렀다.

여기에는 마사고의 두려운 ‘남편의 눈’이라는 것은 없다. 오히려 아내의 아름다움에 대한 남자로서의 ‘질투’와 도둑을 따라가겠다고 하며 자신을 죽여 달라고 애원한 아내의 모습에서 인간에 대한 미움이 극에 달한 남편의 모습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의 발단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다조마루의 말 속에 들어있다. 다조마루가 마사고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를 빼앗고자 하는 욕망 즉 ‘색욕’이 첫 번째이다. 그리고 다조마루가 우연히 발견한 고분총 속에 거울과 칼이 많이 있어 그것을 싼 값에 팔겠다고 한 다조마루의 말에 다케히로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그 욕심 즉 ‘물욕’에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두 남자의 다른 형태의 ‘욕망’과 ‘욕심’은 마사고에게 그들 중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변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다케히로의 죽음은 다조마루와 다케히로 그리고 마사고 세 사람 모두 자신들이 죽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시체를 둘러싼 세 사람의 각각 다른 진술은 결국 도둑의 허세, 다케히로의 사무라이로서의 명예, 그리고 아내인 마사고의 변심에 대한 각각의 변명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다케히로의 죽음은 이들 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이 마지막 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다.

그 때 누군가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내 옆으로 다가 온 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보려고 했다. 그러나 내 주변에는 어느 샌가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누군가. - 그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가만히 내 가슴에 박힌 칼을 뺐다. 동시에 내 입에서

는 다시 한 번 피가 흘러나왔다. 나는 그대로 영원히 연옥의 어둠에 빠져 버렸다.  
.....

이것은 다케히로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칼을 빼내자 다케히로가 ‘영원히 연옥의 어둠’에 빠지는데 이것은 역으로 만약 칼을 빼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을 취했다면 살아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왜 칼을 빼낸 것일까. 그것은 구로사와의 『라쇼몬』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4. 구로사와의 『라쇼몬』, 도둑·강간·에고이즘·거짓말

구로사와의 『라쇼몬』은 아쿠타가와와 세 작품 『라쇼몬』 『덤불 속』 『떼도둑』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영화 첫 부분의 설정, 즉 무너져 가는 라쇼몬 아래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장면과 나그네와 스님 그리고 행인이 사건의 진상을 이야기하는 주 무대,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행인이 아기의 옷을 빼앗아 가는 설정 등은 아쿠타가와와 『라쇼몬』과 상응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작품 전반에 진행되고 있는 사건 전개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덤불 속』의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갑자기 등장하는 아기의 존재는 아쿠타가와와 『떼도둑』의 마지막 부분과 흡사하다. 좀 더 언급하자면 샤킨(沙金)이라는 여자도둑을 둘러싼 이노쿠마(猪熊) 영감과 노파, 그리고 다로(太郎)와 지로(次郎)형제의 갈등을 배경으로 어느 오후부터 다음 새벽까지의 한나절 동안 도둑질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떼도둑』의 마지막 부분과 상응한다. 거기는 백치인 아코기(阿濃)가 라쇼몬 누상에서 아기를 낳는 장면이 있는데 떼도둑들의 갈등과 배신의 추악함 속에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 떼도둑들의 순수한 모습은 ‘휴머니즘’을 이끌어 내는, 즉 구로사와의 『라쇼몬』 마지막 부분과 상응하기 때문이다.

영화는 나무꾼이 화자가 되어 비를 피하러 온 행인에게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 해 주는 설정이다. 나무꾼이 들려주는 사건 자체는 아쿠타가와와 『덤불 속』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사건 전체를 바라보는 전지적 인물로 나무꾼이 설정되

어 있다는 점이 상이하다. “모르겠어. 정말 이해가 안 돼.”라고 내뱉는 나무꾼의 말로 시작되는 구로사와의 『라쇼몬』은 비를 피하기 위해 라쇼몬으로 뛰어 들어오는 행인이 비를 피할 동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데서 나무꾼과 행인, 그리고 스님이 그 사건 전말을 풀어내어 간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즉 나무꾼, 스님, 행인의 역할이 무척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다. 화자인 나무꾼은 이 세상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찬 사람으로, 지나가는 행인은 아쿠타가와와의 『라쇼몬』의 노파와 같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현실적인 삶의 논리로 인간의 추악함이 구현되어 있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인간에 대한 불신의 문제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믿고자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인간 신뢰의 가능성과 그 ‘휴머니즘’을 믿는 스님을 배치해 두고 있다.

다조마루, 그 남자, 그 여자의 진술 외에 나무꾼이 본 사건의 전말은 다조마루와 그 남자, 그리고 그 여자의 삼각구도이다. 다조마루가 그 여자를 강간 한 후에 자신의 아내가 되어 달라고 애원하자 여자는 ‘여자인 자신은 그런 걸 결정할 수 없다’고 한다. 다조마루는 두 남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그녀의 말에 남편과 결투를 하기 위해 남편을 풀어주지만 그 남편은 “저런 여자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싶지 않다” “넌 두 남자와 관계했어. 자결해! 난 이 수치스러운 여자를 원치 않는다. 자네가 가지려면 가져. 여자보다 말 한 필을 택하겠다!”라고 말하고는 그 싸움을 피한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다조마루 또한 한참을 생각하더니 여자를 포기하고 떠나려고 한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여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갑자기 크게 비웃으며 “나약한 건 너희들이야! 당신이 내 남편이라면 이 사내를 왜 죽이지 않지? 이 사내를 죽이고 난 뒤에 나보고 자결하라고 말할 수 있지! 그게 진짜 남자야! 당신도 남자는 아니야. 다조마루라고 했을 때 난 울음을 그쳤지. 이런 지긋지긋한 광대놀음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다조마루가 나를 이런 곳에서 벗어나게 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 나를 구해주기만 하면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지. 그런데 당신도 남편처럼 시시한 인간이야!”라고 외친다. 그러자 갑자기 다조마루와 남편은 칼싸움을 시작하게 되고 다조마루가 결국 그 남자를 죽이고 여자는 도망가 버린다. 그리고 다조마루도 그 남자의 활과 칼을 빼어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데 이것이 나무꾼이 본 사건의 전말이다. 여기서는 흡사 여자와 남자의 사랑이야기를 연상하게

하는 일종의 러브스토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남성에 의해 좌우되는 여성의 존재 가치, 그리고 그런 여성에 의해 좌우되는 남성들, 나약한 인간 군상의 모습과 그러한 부조리한 남녀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강간당한 아내가 수치스러워서 아내를 도적 다조마루에게 가지라고 하자, 그 여자를 아내로 만들려고 그렇게 애원했던 다조마루의 마음이 갑자기 바뀐다. 그리고 그들을 남자답지 못하다고 하는 여자의 말에 흔들려 남편과 다조마루는 칼싸움을 하고 결국 그 남자가 죽게 되고 그 여자도 다조마루도 각각 뿔뿔이 도망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나무꾼의 진술은 결국 검사관 앞에서 진술한 다조마루, 그 여자 그리고 그 남편의 말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그런데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나무꾼 자체 또한 ‘거짓말’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인에 의해 비판의 단상에 오른다.

행인     그래서 자네 말이 옳다고 하는 것 같군.  
 나그네     거짓말이 아니야. 이 두 눈으로 봤어.  
 행인     아닌 것 같은데.  
 나그네     사실이야. 거짓이 아니야!  
 행인     누가 거짓말을 해 놓고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겠어.  
 스님     끔찍한 일이야. 사람이 서로를 못 믿는다면 이 세상은 지옥과 다를 바 없어!  
 행인     그렇지요. 세상은 지옥이지요.  
 스님     아니야. 난 사람을 믿어.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  
 행인     큰 소리 쳐도 소용없소. 생각해 보시오. 지금 이 세 사람 이야기 중 누구 말이 옳다는 거요?  
 나그네     모르겠어. 정말 이해가 안 돼.  
 행인     결국 당신도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거지?

그 때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 행인은 그 쪽으로 뛰어가 버려진 아기의 옷과 포대를 벗겨 가려고 한다.

나그네     뭐하는 짓이야!  
 행인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나무꾼   너무하잖아!

행인     뭘? 어차피 누군가는 이 옷을 가져 갈 게 뻔한데. 내가 가져가면 왜 안돼?

나무꾼   당신은 사악해!

행인     사악하다고? 그러면 이 아이를 버린 부모는? 아이를 버려 놓고 가 버린 그들이 사악한 거지!

나그네   그 옷 안의 부적을 봐! 그 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야. 그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을 한 번 생각해봐! 아이를 버릴 수 밖에 없었다면 얼마나…!

행인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생각해 주려면 한도 없어.

나그네   자신 밖에 모르는 사람!

행인     그게 뭐가 나빠? 인간이 개를 부러워하는 세상이야. 자기를 생각하지 않으면 살아 갈수 없는 세상이라고!

나무꾼   망할 놈의 세상! 그렇다 전부 자기 자신 밖에 생각질 않아. 변명일 뿐이야. 산적, 여자, 그 남자, 그리고 당신도!

행인     그런 당신은 어떻게? 당신도 관청에서 거짓말 했잖아. 난 아니야! 그 단검을 어떻게 했어? 다조마루가 진주가 박힌 귀중한 물건 같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게 숲 속에서 그냥 사라졌어? 당신이 훔치지 않았으면 누가 그랬겠어? 내말이 맞지? 산적은 자신 이외의 다른 놈을 보고 산적이라고 부르는 법이야! 바로 그런 걸 자기 밖에 모른다고 하는 거야! 더 할 말 있어? 없으면 간다. 으하하하하하!

조금 긴 인용문이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나무꾼, 스님 그리고 행인의 모습을 통해서 다양한 인간 군상을 발견할 수 가 있다. 사건의 진상을 모두 보았기 때문에 진실인 것처럼 진술한 나무꾼의 말 속에 역시 ‘거짓말’이 있었다. 아쿠타가와 의 『덱불 속』의 ‘그 누군가’가 여기서 나무꾼이 되는 것인데 관청에서 단순히 죽은 시체만을 보았다고 한 것도 또 그 사건에 연루되기 싫어, 훔친 ‘단검’으로 인해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인간의 예고이즘은 사건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타인에게도 역시 예고이즘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구로사와는 ‘거짓말’로 가득 찬 인간의 예고이즘이 만연한 세상이라는 해도 그것을 구원할 방책으로 ‘휴머니즘’을 제시해 두고 있다. 아기의 출현이

그것이다. 아기는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아쿠타가와와 『떼도둑』의 마지막 부분과도 일치하는데 이노쿠마 집의 하녀였던 백치 아코기가 라쇼몬 누상에서 낳은 아이가 바로 그것이다. 샤킨의 애정행각과 그를 둘러싼 도적들의 에고이즘과 반목으로 얼룩졌지만 그런 인간의 추악함이 갓 태어난 아기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떼도둑』<sup>9)</sup>은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무꾼이 아기를 맡아 키우게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인간의 추악한 에고이즘으로 버려진 아기를 에고이즘의 나무꾼이 수용함으로써 휴머니즘의 재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 또 이것은 스님이 처음부터 인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한 그 희망을 지지해 주고 있다. 결국 영화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에고이즘이 있더라도 그것은 결국 인간의 ‘휴머니즘’을 통해서 구원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5. 맺음말

본고에서 살펴본 『곤자쿠』의 『라쇼몬』, 아쿠타가와와 『라쇼몬』, 그리고 구로사와의 『라쇼몬』의 강간과 살인사건은 결국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서 기인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한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곤자쿠』에서는 무의식적인 상태로 표면화되어 있진 않았지만 아쿠타가와와 『라쇼몬』에는 다케히로의 물욕과 다조마루의 색욕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그리고 구로사와의 영화에는 좀 더 나아가서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는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무꾼과 행인으로 대변되는 모든 인간들로 확대되어 인간의 에고이즘이 결국 거짓말을 낳게 한다는 것이 다양한 각도로 접근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에고이즘은 세 『라쇼몬』에서 조금씩 자각하며 의식화 되어가고 있었다. 즉 『곤자쿠』에는 강간보다는 도둑질하지 않은 도둑을 감탄하고 있고 강간에 대해서는 거의 의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쿠타가와와 『라쇼몬』에는 도둑 다조마루가 아내

9) 『떼도둑』은 『곤자쿠』의 제29권 제3화와 제12화의 도둑이야기에서 차용한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아코기가 출산한 장소가 라쇼몬 누상이라는 것과 이들 떼도둑 속에 도둑 다조마루도 언급이 되어 있는 등 여러 면에서 유사점이 보인다.



마사고를 강간한 것이 원인이 되어 결국 살인사건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으로 강간에 그 중심을 두고 사건의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로사와의 『라쇼몬』에는 도둑, 강간 이 모든 사건에는 인간의 에고이즘이 저변에 깔려있고 또 그로 인해 다양한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러한 인간의 에고이즘이나 거짓말은 그것을 행하는 인간 자신들은 그것을 에고이즘 또는 거짓말이라고 깨닫지도 의식하지도 못한다. 그러한 아이러니를 구로사와의 『라쇼몬』은 적확하게 꼬집으며 인간들에게 자각하고 의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인간의 에고이즘이 구체화되며 의식화 되어가는 이 세 『라쇼몬』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아쿠타가와가 제시해 놓은 인간의 에고이즘에 대한 문제를 구로사와는 휴머니즘이라는 장치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흔히 종교와 인간이성의 대립에서 근대철학이 형성되어 절대적인 신에 대한 존재를 부인해 온 서양과는 달리 구로사와는 종교적 믿음이 오히려 ‘휴머니즘’을 이끌어 내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인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스님’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즉 이것은 한 살인사건을 바라보는 인간 각자의 에고이즘에 대한 다양한 시각으로 이끌어 내었던 아쿠타가와와 『라쇼몬』이 ‘휴머니즘’ 지향이라는 구로사와의 영화 『라쇼몬』으로 그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今昔物語集 4』(2002), 小學館, pp.288~359
- 『芥川龍之介全集 1』(1995), 岩波書店, p.145
- 『芥川龍之介全集2』(1995), 岩波書店, p.123
- 『芥川龍之介全集8』(1996), 岩波書店, p.113
- 구로사와 아키라(1950), 『라쇼몬』, 일본다이에이(大映)영화사
- 문명재저(2003) 『일본설화문학연구』, 보고서, pp.17~62
- 허영은저(2005) 『일본 문학으로 본 여성과 가족』, 보고서, pp.245~273

- ❖ 투고일 : 2008.12. 31
- ❖ 심사일 : 2009. 2. 6
- ❖ 심사완료일 : 2009. 2. 10